

익산시 “그린뉴딜 협력”

주한 EU 대표부 방문...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 논의 탄소가스 배출량 감소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강조

익산시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최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에 대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익산을 방문해 정현을 시장과 함께 그린뉴딜정책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다음으로 전보도를 가장 많이 방문했다며 도내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라이터러 대사의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식품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 덕분에 이뤄지게 됐다.

대사는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유

럽그린딜과 유럽 도시들이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협력해 도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유럽연합 국제도시 협력 프로그램 (IUC, International Urban Cooperation Programme)' 등을 소개하며 익산시의 참여를 요청했다.

세계 인구의 약 54%가 도시에 거주하여 도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뜻하는 F2F(Farm-to-Fork)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딜은 살충제 및 항

균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기농업을 늘리며 동물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현을 시장은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그린딜을 발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해 활발히 논의의 중이었고 보고 인상깊었다”면서 “익산시도 최근 홀로그래프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식품클러스터의 현황과 함께 식품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소스개발센터와 식품창업센터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한반도 평화 포럼의 일환으로 EU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강연을 녹화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인바디)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서부권 '내 혈관 숫자알기의 달' 운영

혈압 · 체성분검사 등 무료 시행

군산시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인바디)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장기화로 우울감과 의료기관 방문 기피 분위기에 따른 서부권(소룡, 미성동) 지역주민의 심신을 위로하고자 6월을 내 혈관 숫자 알기의 달로 지정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인바디)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를 통해 본인의 혈관건강을 체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 상담 ▲식이섭취량 및 식습관 평가를 통한 1일 적정섭취량 영양교육 ▲유소연자 서부권 협약 의료기관 의뢰 ▲근력향상을 위한 운동습관 상담 등 맞춤형 운동처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중요성과 면역력 증강 식품 안내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쉽게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제작한 건강생활지침서 및 참여자를 위한 기프트 홍보물품(건강관리수첩, 부채, 파스, 칫솔세트 등)도 제공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소방서, 전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우수상'

남수희 대원 발표 관객 호응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020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생활안전 분야)에서 남수희 의용소방대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자존 확대와 우수강사 발굴 육성을 위하여 개최되어 12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2개 분야(생활안전·심폐소생술)에 대표로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 익산소방서 대표로 출전하는 남수희 여산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 주제로 차분한 목소리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여 심사위원과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남수희 대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나은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우수상을 수상한 남수희 대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의용소방대 생활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020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생활안전 분야)에서 남수희 의용소방대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정강사를 통해 도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제공해 안전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중심 조직 개편

정현을 시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조직을 투자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

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품 대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기업유치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조직을 투자유치 중심으로 개편해 모든 직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모색

공설시장 청년몰 상인 공모

군산시 구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청년상인 모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시민과 예비창업자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단장 신지양)은 15일 저녁 7시에 구도심상권활성화구역내의 청년들에게 예비창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0 상권르네상스사업 창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은 신규창업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 공설시장청년몰 입점 희망자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신영시장 및 중앙시장 등의 창업예정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자에 대한 정착 지원은 1인당 2

년간 2,000만원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약 10평 기준 점포 임대료(180~300만원) 및 인테리어비용(최대600만원), 상품개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최대 900만원) 등이다. 또한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거리축제, 온·오프라인 홍보, MD·VMD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군산청년포럼 소속 20여명 청년들과 기타 창업희망자들이 모여서 지역내 상권활성화와 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은 지난 8일에도 군산시청년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창업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있는 여러 단체나 희망자들에게 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군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군산의 경제상황을 극복할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한국수어(수화)교실 운영

군산시가 장애인과 원만한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한국수어(수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수어(수화)교실은 군산시가 지난 4월에 교육부 공모 사업인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다.

교육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사법, 낱말 및 시간,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 관련 단어와 표현을 익혀 비교적 쉽게 청각 장애인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수강생 모집 기간(6.8~6.12) 이전부터 문의 전화가 많고,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원광대병원 이달 재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권연원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도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아쉽게 시행해 왔던 금연캠프를 다시 시행한다.

전북권연원지원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했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오는 6월 넷째주(06/22~26)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면서 금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권연원지원센터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재개하여 지역사회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정해 참가자들의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